

“5·18 발포명령 쏠모 밝혀내야”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문 대통령, 5·18 최후 항전지 옛 전남도청서 40주년 기념사

진상규명, 처벌 아닌 역사 기록...진실 고백하면 용서의 길 열려

나눔과 연대의 ‘오월정신’이 코로나 국난 극복의 원동력

5·18 헌법 전문에 새기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를 통해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의 흑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3·4·6·7·9·20면>

5·18 최후 항쟁지인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도 5·18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상규명 목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역olum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2018년, 저는 ‘5·18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월정신’의 공유와 계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 정신은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

통령은 구체적으로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서 “‘오월 어머니’들은 대구 의료진의 헌신에 정성으로 마련한 주먹밥 도시락으로 어려움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돕고 나눌 수 있을 때, 위기는 기회가 된다”며 “위기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우리의 연대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힘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80년 5월 항쟁의 본부 역할을 했던 옛 전남도청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시의 현장에서 5월 정신을 기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기념식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5·18 진상의 확실한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배·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유가족 등은 박수로 화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5·18 당시 희생된 고(故) 임은택 씨의 아내 최정희 씨가 남편에게 쓴 편지 낭독을 진지하게 경청한 뒤, 낭독이 끝나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최씨에 약속을 건네며 함께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마지막에 유족 등 참석자와 함께 손을 들어 흔들며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했다. 미래통합당 일각의 5·18 편파 발언 등을 사죄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제창에 동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식 후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 지난해 별세해 이곳에 안장된 고(故) 이연 씨의 묘역을 참배했다. 5·18 당시 전남대학교 1학년이었던 이씨는 YWCA 회관에서 계엄군과 총격전 중 체포, 상무대로 연행돼 고초를 당했다. 문 대통령은 이씨 딸의 손을 잡고 “따님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달라”며 위로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 제2묘역에서 5월 영령의 묘에 헌화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5·18 40주년 기념식 엄수

옛 도청앞 광장, 여야 지도부 총출동

5·18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기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열렸다.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항쟁지인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주요 인사,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 400여명만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도 기념식장을 찾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함께 5·18 영령을 추모했다.

기념식은 방송인 김세동의 사회로 도입 영상, 국민 의례, 경과보고, 편지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26년’,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등 5·18을 소재로 한 영화를 활용한 도입 영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김용택 시인이 40주년 기념식을 위해 지은 시 ‘바람이 일었던 곳’을 문희상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묵념사로 낭독했다. 경과보고는 5·18 유가족인 남녀 대학생이 낭독했다. 이어 5·18 당시 남편 임은택(사망 당시 36세) 씨를 잃은 부인 최정희(73) 씨가 남편을 찾아 헤맨 지 열흘 만에 광주교도소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했던 사연을 편지로 전했다.

기념공연에서는 작곡가 정재일과 영화감독 장민승이 5·18 40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에게 5·18의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담아 제작한 23분 길이 영상 ‘내 정은 청산이오’가 최초로 공개됐다. 출연진과 풍물패가 무대와 옛 전남도청 옥상에 올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헌정 공연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행사 마지막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40주년 특집

- 5·18 40주년 도청앞 기념식 이모저모 ▶2면
- 문 대통령이 위로한 유가족들의 사연 ▶6면
- “시민군 후송하던 사진 속 청년은 접니다” ▶7면